

인공지능 국가 대항전의 각주와 숨은 질문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을 보며 몽클해하는 우리의 공통 경험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K팝, K드라마, K스�포츠를 보라. 이외에도 나라의 명운을 걸고 세계 시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칼끝아지는 분야가 있으니,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주역들을 향한 몽클한 마음이 너무도 강력하여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면모들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 인덱스 2024'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가들과 저널리스트, 대중이 인공지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소동은 분석대상이 된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한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HAI 연구진은 보고서 그래프 하단 각주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일부 모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

김산디의 기술농담

서울대 박사 과정



어 두었다. 연구진은 한국이 '인공지능 국가 대항전'을 치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 언론, 기업 모두가 이 '전투'의 승패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랐을 것이다. 패배는 자각적인 소제였고, 언론은 보고서 각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나도 개발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기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0건' 보도, 사실과 달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바로잡아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HAI 연구진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기업과 이를 평가하는

연구자 그리고 정부의 관계는 한층 돈독해졌다.

한편 우리는 인공지능의 다른 문제들을 살피고 지 못했다. '인공지능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다양성,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보도한 한국 언론은 몇이나 될까.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을 개발하는 소수 기업의 '승리'에 한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생각은 인공지능이 야기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후순위로 밀어낸다. 그러나 인공지능 전쟁에서 한국이 서둘러 승리하기를 바라게 되는 이 몽클한 마음은 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리만큼 중요한 다른 사안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폴리처 재단은 '인공지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시리즈'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공개, 조사, 설명하는 책임이 언론에게 있음을 주시시킨다. 인공지능은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 언론이 인공지능 평가 보고서의 각주를 살피면서 단정하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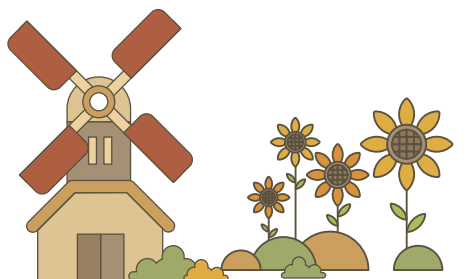
춘풍화우(春風化雨)

미세먼지와 황사가 인해 숨쉬기 곤란 할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기간이다. 다행히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면서 공기도 맑아진 듯 하다. 이 계절에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 춘풍화우는 '봄바람을 타고 내리는 비'가 농사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풍년을 기대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육에서도 일맥상통하는데, '때에 알맞은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무엇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해결 하지 못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임선일의 오지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사회학박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을 함께 성장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문제만이 학생들의 모든 문제가 아니기에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음악이나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대시키는 일도 재단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업은 학교 공부에만 매몰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해방구를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도 화성시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재단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함께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화성시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처럼 지역과 학교가 함께 키운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면 더 바랄 나위 없다. 더 나아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지금의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면 지극히 바람직한 '지역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덧붙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져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학교안전사고·학폭 비율 폭증...특단 대책을

수년 사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처리 크게 늘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통계 결과 도내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비율이 최근 수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소 주춤했던 학교 안전사고·폭력이 긴장해소와 더불어 폭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속하는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가 5년 전인 지난 2019년 한해 학교안전사고 관련해 지급한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공제급여는 2만 2792건에 68억 8700만 원이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서 예방 활동과 함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시기인 2020년 8745건·58억 9600만 원, 2021년 1만777건·56억 4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는 전년보다 1만 911건(47.4%)·14억 5400만 원(16.9%)이 늘어난 2만 3006건·86억 22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1만 1125건(48.8%)·31억 8900만 원(46.3%)이 늘어난 3만 3917건·100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도 크게 늘었다. 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학폭 관련 지원 치료비 현황은 2019년 153건·1억 4800만 원, 2020년 153건·1억 2400만 원, 2021년 120건·1억 300만 원, 2022년 150건·1억 8900만 원 등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9건·3억 4600만 원으로 경증 뛰었다. 2022년에 비해 건수는 149건(49.8%), 치료비는 1억 5700만 원(83.1%) 급증한 수치다.

학교 안전사고와 학폭이 근년에 증가한 상황을 놓고,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을 뿐'이라는 해석은 원인분석을 빙자한 초라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의식 고취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학교의 기초적인 교육목표여야 한다.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자들은 물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가 2022년 통계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하여 건수로 48.8%, 금액으로는 46.3%나 늘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해에 2022년 대비 건수가 49.8%, 치료비는 무려 83.1%나 폭증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그렇게 떠들어던 '안전관리'는 다 무엇이고, 하염없이 외쳐온 '학교폭력 근절' 구조들은 다 공염불이었다는 얘기 아니라, 정밀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학교 안전이 허술하고, 학폭이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국가 사회라면 희망이 있을 턱이 없다. 경기도의 학교 환경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경기신문
www.kgnews.co.kr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는 설 주 간	김 대 훈 최 인 숙	인 쇄 인 편집국장직대	박 장 희 고 태 현	인 천 본 사 사 장 인천편집국장직대	이 한 성 정 민 교
본사 : ☎ 16949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인천본사 : ☎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9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 독 료 : 월 15,000원 · 1부 : 1,0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5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참 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268-8114, 031)257-4459 |

